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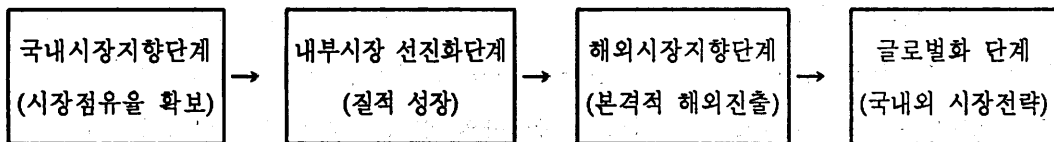
V. 國內 保險產業의 對應方案

本章에서는 保險產業의 發展段階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전개한 후 OECD가입을 계기로 향후 1~2년 사이에 대폭 개방될 우리나라 保險市場의 位置를 우선 점검해 본다. 이러한 시장위치에서 국내보험사들이 변화하는 開放環境에서 현재 어느 정도의 국내시장내 競爭力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對應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어느 정도의 競爭力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구체적 海外營業 및 投資戰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國內保險產業의 位置

보험산업도 일반 제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내부시장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성장과정을 거친 후 해외시장을 향해 진출하게 된다. 따라서 保險會社의 國際化水準을 국내 사업규모 및 내용, 해외거점의 유무, 해외영업활동 내용, 국제업무 관련 부서조직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4段階로 구분할 수 있다.

<圖 1> 保險產業의 發展段階



첫째, 國內市場指向段階는 보험사가 國內保險市場에서의 市場占有率 確保 競爭에 주력하는 단계를 뜻한다. 이 단계에서는 국내시장이 꾸준한 양적 성장을 하고 내국사간의 시장점유율 확보경쟁이 치열한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政府의 強力한 規制와 保護政策에 따라 외국 선진보험사와의 경쟁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國內產業의 內部先進化 段階에서는 국내 보험산업이 어느 정도 양적 성장을

달성하게 됨으로써 外國社의 開放壓力이 거세지고, 政府도 規制를 緩和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내외국사간 경쟁을 통하여 國內産業의 先進化를 추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보험사들이 선진외국사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업무구조를 개선하고 각종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保險産業의 先進化도 이루고 內國社의 國際競爭力도 갖추게 되는 단계이다. 그리고 先進國에 情報調査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소 형태의 海外據點을 두게 되며, 본사에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게 된다. 또한 僑胞나 現地進出 國內企業을 주 대상으로 소규모 해외영업이 영위되기도 한다.

셋째, 海外市場 指向段階는 保險仲介 또는 支社設立의 형태로 海外營業을 試圖하는 단계로, 교포나 현지 국내기업외에 現地 國民과 企業을 상대로 積極的인 營業活動을 전개하는 단계이다. 資産運用에 있어서도 國際分散投資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해외투자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해외시장분석과 해외마케팅 전략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국내 본사에 설립하여 社內 他部署와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내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成長보다는 安定에 주력하며, 先進保險技法을 도입·정착시켜 국내외에 선진보험사로서의 기업이미지를 확보하려는 단계이다.

넷째, 글로벌화(globalization) 단계는 2個國 以上の 海外市場에 進出하여 보험영업과 투자활동을 국내처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단계이다. 海外에 子會社를 설립하여 별개의 獨立採算單位(profit center)로 운영하며, 국내 본사는 이들 자회사들간의 조정·통제 기능만 하고 국제업무의 각종 권한을 海外 子會社에 이양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또한 현지 소비자들에게도 성공적으로 국내사의 인식을 확산시킨 단계이기 때문에, 보험영업도 국내보험영업분야의 해외판매형태가 아니라 현지수요에 맞는 新規領域指向을 목표로 하게 된다. 자산운용도 국내자산의 해외운용뿐 아니라 海外資金의 國內受託業務까지로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단계이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1980년대 말까지 국내시장지향단계를 거쳐 현재 내부시장선진화 단계의 말기와 해외시장지향단계의 초기과정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특히 OECD의 가입에 따른 시장의 추가개방으로 국내산업의 내부선진화를 통한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여야 하며 해외시장을 지향하여 해외 분산투자 및 해외영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장기계획에 의한 海外市場調査와 資料蒐集 및 市場分析 등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2. 內國市場에서의 對應方案

가. 競爭力 評價

競爭力은 제도에 의하여 생성되는 內生變數이기 때문에 국가간 제도상의 차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제도하에서의 내국사와 외국사업자와의 경쟁력은 외국제도하에서의 우리나라 보험사업자와 당해국 내국사와의 경쟁력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한 외국사업자에 대한 內國社의 競爭力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업능력측면을 반영하는 收入保險料 占有率과 자산운용능력측면을 반영하는 資產 運用收益率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OECD회원국들에서의 외국보험사와 내국사의 경쟁력을 비교·평가하고자 한다.

국제경제학에서 국제간의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방법들 중에는 한나라의 지역별 수출성과에 기초를 둔 지역별 비교우위지수(Comparative Advantage by Countries : CAC)와 발랏사(Balassa)의 현시 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지수)가 있다. 이 가운데 발랏사의 RCA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CA_i = (X_{ki}/X_{wi})/(X_k/X_w) \times 100$$

상기의 식에서 X_{ki} 는 i번째 상품에 대한 특정국 k의 수출액, X_{wi} 는 i번째 상품에 대한 세계 총수출액, X_k 는 특정국 k의 총수출액, X_w 는 세계 총수출액을 나타낸다. 따라서, RCA_i 지수가 100보다 크다면, 특정국 k의 i번째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은 그 국가의 전체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i상품의 국제경쟁력은 전체 상품의 평균비교우위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의 지수를 보험산업에 응용하여 다음과 같은 競爭力指數를 도출하였다.

$$VWI_i = (F_i/T_i)/(\sum F_k/\sum T_k)$$

위의 식에서 F_i 는 i 국 시장에서 외국보험사업자가 거수한 總收入保險料, T_i 는 i 국의 總收入保險料, $\sum F_k$ 는 OECD 특정 회원국의 국내시장에서 외국보험사업자가 거수한 收入保險料의 總計, $\sum T_k$ 는 OECD 각회원국의 收入保險料의 總計를 나타낸다. 따라서 분자값인 (F_i/T_i) 는 각회원국에서의 외국보험사업자 수보비율을 나타내며 분모값인 $(\sum F_k/\sum T_k)$ 는 OECD 전체 외국보험사업자의 수보비율을 의미한다. 동 지수는 발랏사의 RCA지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OECD회원국은 외국보험사의 진출이 원활하여 하나의 단일보험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위의 VWI 指數는 각 회원국의 보험시장 규모나 외국보험사업자의 영업규모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그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전체 비중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總額比重指數(Value Weighted Index : VWI)의 성격을 갖는 지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수의 경우 외국보험사업자의 대한 현실적인 진입규제의 존재, 단일화폐단위로의 통일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제치와의 誤差發生의 可能性, 보험시장의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 미국, 일본 등 몇몇 거대보험시장이 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지수와 병행하여 국가별로 동일한 加重值를 부여한 均等比重指數(Equally Weighted Index : EWI)도 아울러 산출하여 각국의 경쟁력을 비교하였다.

$$EWI_i = \frac{(F_i/T_i)}{\frac{\sum(F_k/T_k)}{n}}$$

위의 식에서 $\sum(F_k/T_k)/n$ 은 OECD 각회원국 외국보험사업자들의 시장점유비중의 합을 회원국수 n 으로 나눔으로써 외국보험사업자들이 현지국에서 차지하는 수보비중의 평균치가 되는 것이다. 총액비중지수와 균등비중지수 모두 외국보험사업자의 지수값이 100보다 작을수록 內國社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1) 營業部門

① 分析資料

OECD 각 회원국의 국내시장에 진출한 외국보험사에 대한 내국사의 경쟁력을 영업 능력측면을 반영하는 收入保險料占有率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OECD에서 매년 발간하는 「保險統計年鑑(Insurance Statistics Yearbook)」의 OECD회원국별 원수보험료(direct gross premium)기준 시장점유율자료를 이용하였다.

<表 12> OECD 會員國의 域內市場占有率 推移 (원수보험료 기준)

(單位: %)

국가	1990		1991		1992		1993		1994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호 주	2.37	0.91	2.11	0.84	1.81	0.67	2.02	1.28	1.92	1.44
오스트리아	0.40	0.84	0.38	0.83	0.39	0.88	0.44	0.86	0.41	0.88
벨 기 에	0.50	0.94	0.50	0.92	0.52	0.99	0.49	0.92	0.55	0.90
캐 나 다	2.36	1.99	2.41	2.20	1.87	1.95	1.31	1.83	1.70	1.28
덴 마 크	0.39	0.55	0.41	0.48	0.44	0.50	0.46	0.46	0.53	0.48
핀 란 드***	0.97	0.46	0.89	0.41	0.63	0.33	0.06	0.25	0.09	0.27
프 랑 스	5.92	5.27	6.10	4.97	6.81	5.23	7.24	4.96	7.99	5.06
독 일*	5.49	8.12	5.61	8.62	6.44	9.29	6.21	9.28	6.34	9.76
그 리 스**	0.07	0.10	0.08	0.09	0.09	0.10	0.09	0.10	0.09	0.10
아이슬랜드	0.00	0.03	0.00	0.03	0.00	0.03	0.00	0.02	0.00	0.02
아일랜드	0.38	0.26	0.35	0.27	0.30	0.28	0.30	0.25	0.31	0.28
이태리	1.16	3.35	1.28	3.45	1.39	3.62	1.21	2.91	1.33	2.85
일본	30.10	9.88	31.52	10.30	31.86	10.23	34.42	11.86	34.22	12.44
룩셈부르크	0.02	0.05	0.03	0.05	0.02	0.05	0.02	0.05	0.02	0.05
네덜란드*	1.80	1.46	1.82	1.23	1.88	1.44	1.57	1.44	1.58	1.58
뉴질랜드*	0.10	0.17	0.10	0.13	0.09	0.13	0.08	0.09	0.08	0.10
노르웨이	0.30	0.53	0.35	0.48	0.35	0.51	0.28	0.45	0.31	0.44
포르투갈	0.08	0.24	0.10	0.27	0.13	0.31	0.13	0.29	0.14	0.29
스페인	0.86	1.89	1.11	1.98	1.08	2.13	1.01	1.78	1.36	1.74
스웨덴	1.08	0.84	1.11	0.90	0.99	0.87	0.69	0.78	0.79	0.58
스위스	1.64	1.27	1.66	1.21	1.65	1.20	1.62	1.13	1.77	1.21
터키	0.03	0.11	0.03	0.11	0.03	0.13	0.03	0.17	0.01	0.12
영국*	9.74	6.42	10.71	6.66	10.49	7.50	9.00	6.54	7.77	6.21
미국	34.22	54.34	31.35	53.57	30.52	51.19	31.04	51.73	30.41	51.35
한국	3.50	0.85	3.83	1.01	3.81	1.02	3.63	1.12	3.86	1.31

註: * 순수입보험료기준(net written premium basis). 단 독일 및 노르웨이는 생보만 해당

** 1991년까지는 순수입보험료기준(net written premium basis)

*** 1993년 이후부터는 생보실적에 공적연금의 실적 미포함

資料: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1987-1994, 1996 및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아울러 OECD 회원국별로 自國市場에서의 외국계보험회사⁶⁾ 및 외국보험회사의 지점 및 대리점의 시장점유율자료를 이용하였다. 동 자료에서는 OECD 각회원국 국내시장에 진출한 전체 외국보험사업자(외국계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의 지점 및 대리점 포함)의 총수입보험료(gross premium, 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기준 시장점유율과 외국보험회사의 지점 및 대리점의 市場占有率을 생·손보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내관련통계는 보험감독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保險統計年鑑」의 자료를 이용했다.

<表 13> OECD 會員國別 外國保險事業者 市場占有率 推移

(單位: %)

년 도 국 가	1990		1991		1992		1993		1994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호 주	18.86	43.81	22.27	40.70	26.17	58.08	-	38.91	-	37.05
오스트리아	34.01	47.44	36.08	46.89	36.49	48.18	33.82	48.78	37.51	49.25
벨 기 에	-	11.11	-	10.07	-	7.25	-	6.84	-	2.92
캐 나 다	35.29	63.32	34.09	62.33	35.81	64.37	28.72	61.58	33.17	70.50
덴 마 크	9.06	27.18	9.33	27.06	9.55	34.48	7.65	36.74	8.67	22.15
핀 란 드	0.00	0.23	0.00	0.22	0.00	0.23	-	-	0.00	-
프 랑 스	8.15	12.12	-	-	6.66	18.29	-	-	-	-
독 일	12.54	17.66	12.47	13.95	11.43	14.26	11.33	16.29	9.80	7.83
그 리 스	-	-	-	-	-	-	33.00	27.96	-	-
아이슬랜드	0.00	0.00	0.72	3.35	1.64	3.92	3.38	4.11	4.09	0.68
아일랜드	31.17	37.53	32.63	35.30	24.75	34.36	21.95	27.80	23.69	24.86
이 태 리	-	-	-	-	-	-	-	-	1.80	2.80
일 본	2.24	2.86	2.35	3.15	2.48	3.17	2.66	3.16	3.07	3.29
룩셈부르크	-	-	-	-	-	-	-	-	9.75	19.29
네덜란드	24.90	27.42	19.89	20.08	23.30	29.05	22.85	25.85	22.36	23.51
뉴질랜드	-	-	-	-	-	-	-	-	-	-
노르웨이	0.00	15.17	1.73	17.38	2.18	15.72	1.77	16.60	-	-
포르투갈	30.92	13.06	33.28	27.30	27.86	25.72	28.78	12.76	29.35	9.12
스페인	16.35	31.52	17.06	39.12	-	-	23.34	41.29	17.70	32.10
스웨덴	-	-	0.00	-	0.00	-	0.00	-	0.00	-
스위스	2.92	9.83	2.43	9.56	2.35	9.79	2.78	12.22	-	10.89
터 키	0.57	12.54	1.17	13.35	-	12.30	4.88	11.47	5.80	10.01
영 국	5.19	4.84	4.71	4.41	4.48	5.24	2.20	6.25	2.29	6.35
미 국	9.18	7.10	8.19	9.43	12.14	10.04	15.15	10.39	13.41	9.81
한 국	3.03	0.84	3.82	0.62	4.82	0.49	5.79	0.47	6.29	0.44

資料: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1987-1994, 1996 및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 6) 외국계보험회사의 정의는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으나,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사의 지분이 50%이상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비율이 49%이상인 합작사와 외국사의 현지법인(자회사)을 외국계보험회사로 간주하였다.

② 分析結果

균등비중지수의 경우 <表 13>을 이용하여 정의식에 따라 국가별로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반면, <表 12>와 <表 13>을 이용한 총액비중지수의 값을 구하기 위하여는 정의식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VW_i 를 다음 식으로 변형시켰다.

$$VW_i = (F_i/T_i)/(\sum F_k/\sum T_k) = (F_i/T_i)/[\sum(\frac{F_k}{T_k})(\frac{T_k}{\sum T_k})]$$

위 식에서 F_i/T_i 나 F_k/T_k 의 값은 <表 13>, $T_k/\sum T_k$ 는 <表 12>에서 구할 수 있다.

영업부문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總額比重指數와 均等比重指數에 의하여 수입보험료 측면에서 각국의 比較優位指數를 구한 결과 두 지수에 따른 국가별 순위는 거의 변하지 않는 반면, 균등비중지수의 경우 총액비중지수에 비해 더 많은 수의 국가에서 내국사들이 외국사에 비해 競爭力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액비중지수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市場規模가 큰 국가일수록 그 분모값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의 外國事業者 市場占有率보다 더 낮은 외국사업자 점유율을 갖는 국가들에서만 내국사들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외국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OECD회원국의 單純平均水準보다 낮기 때문에 總額比重指數의 경우 均等比重指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들의 수가 작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의 총액비중지수를 강형 경쟁력지수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균등비중지수를 약형 경쟁력지수로 해석할 수 있다.

均等比重指數의 경우 분석대상이 된 24개 OECD회원국 중 1994년을 기준으로 자료분석이 가능한 12개국과 우리나라 중에서 生命保險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이태리, 일본, 아이슬랜드, 터키, 덴마크, 독일, 미국이 자국시장에서 전체 외국보험사업자에 비해 내국사들이 競爭力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외국사업자에 비해 내국사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외국사의 비교우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表 14> OECD會員國 外國保險事業者의 收入保險料 均等比重指數 推移(生保)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국가					
호주	119.6	155.1	171.8	215.1	241.1
오스트리아	215.7	251.2	239.6	-	-
벨기에	-	-	-	-	-
캐나다	223.8	237.4	235.1	182.7	213.2
덴마크	57.5	65.0	62.7	48.7	55.7
핀란드	-	-	-	-	-
프랑스	51.7	-	43.7	-	-
독일	79.5	86.8	75.0	72.1	63.0
그리스	-	-	-	209.9	-
아이슬랜드	-	5.0	10.8	21.5	26.3
아일랜드	-	-	-	-	-
이태리	-	-	-	-	11.6
일본	14.2	16.4	16.3	16.9	19.7
룩셈부르크	-	-	-	-	-
네델란드	157.9	138.5	153.0	145.3	143.7
뉴질랜드	-	-	-	-	-
노르웨이	-	12.0	14.3	11.3	-
포르투갈	196.1	231.7	182.9	183.1	188.6
스페인	103.7	118.8	-	148.5	113.7
스웨덴	-	-	-	-	-
스위스	18.5	16.9	15.4	17.7	-
터키	3.6	8.1	-	31.0	37.3
영국	-	-	-	-	-
미국	58.2	57.0	79.7	96.4	86.2
한국	19.2	26.6	31.6	36.8	40.4

損害保險의 경우 자료 1994년을 기준으로 자료분석이 가능한 20개 회원국과 우리나라 중에서 캐나다,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내국사들이 외국보험회사의 支店 및 代理店에 비해 競爭力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보험회사 지점의 경쟁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력지수도 계속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表 15> OECD 會員國 外國保險會社 支店 및 代理店의 收入保險料 均等比重指數 推移(損保)

연도 국 가	1990	1991	1992	1993	1994
호 주	143.7	107.5	108.9	93.5	74.6
오스트리아	11.9	12.8	13.9	13.6	2.5
벨 기 에	125.1	140.4	113.4	109.2	46.5
캐 나 다	299.6	357.1	391.6	392.5	429.5
덴 마 크	58.4	24.8	79.6	99.6	54.5
핀 란 드	2.6	3.1	3.6	5.1	7.0
프 랑 스	39.3	42.7	43.0	43.6	21.5
독 일	35.9	42.2	35.5	35.3	24.4
그 리 스	188.72	263.3	-	183.4	163.6
아이슬랜드	-	-	-	-	-
아 일 랜 드	422.6	492.0	537.4	443.7	396.0
이 태 리	45.0	55.5	58.5	58.6	44.6
일 본	30.0	40.3	45.0	45.7	47.2
룩셈부르크	-	-	-	-	307.3
네 델 란 드	71.7	82.8	98.1	92.6	81.4
뉴 질 란 드	347.9	-	-	-	-
노 르 웨 이	14.6	21.0	21.4	23.1	-
포 르 투 갈	86.6	107.5	115.3	122.1	58.5
스 페 인	87.5	105.8	120.3	100.9	106.3
스 웨 덴	-	-	-	-	-
스 위 스	18.2	16.7	17.0	17.1	17.0
터 키	4.7	9.3	1.9	4.8	3.2
영 국	54.5	61.5	82.0	99.8	101.2
미 국	10.2	13.8	13.6	16.0	13.4
한 국	9.5	8.7	7.7	7.5	7.0

한편, 강화된 형태의 경쟁력지수인 總額比重指數를 통하여 살펴 볼 때 生命保險의 경우 199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이태리, 일본, 아이슬랜드, 터키, 덴마크가 자국시장에서 외국보험사업자에 비해 내국사들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6> OECD 會員國 外國保險事業者의 收入保險料 總額比重指數 推移(生保)

국 가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호 주	227.6	287.6	292.3	350.0	408.0
오스트리아	410.4	466.0	407.6	-	-
벨 기 에	-	-	-	-	-
캐 나 다	425.8	440.3	400.0	297.3	360.8
덴 마 크	109.3	120.5	106.7	79.2	94.3
핀 란 드	-	-	-	-	-
프 랑 스	98.3	-	74.4	-	-
독 일	151.3	161.1	127.7	117.3	106.6
그 리 스	-	-	-	341.6	-
아이슬랜드	-	9.3	18.3	35.0	44.5
아 일 랜 드	-	-	-	-	-
이 태 리	-	-	-	-	19.6
일 본	27.0	30.4	27.7	27.5	33.4
룩셈부르크	-	-	-	-	-
네 델 란 드	300.4	256.9	260.3	236.5	243.2
뉴 질 랜 드	-	-	-	-	-
노 르 웨 이	-	22.3	24.4	18.3	-
포 르 투 갈	373.1	429.8	311.2	297.9	319.3
스 페 인	197.3	220.3	-	241.6	192.5
스 웨 덴	-	-	-	-	-
스 위 스	35.2	31.4	26.3	28.8	-
터 키	6.9	15.1	-	50.5	63.1
영 국	-	-	-	-	-
미 국	110.8	105.8	135.6	156.8	145.9
한 국	37.5	43.6	58.2	65.2	70.1

損害保險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터키, 핀란드, 미국, 스위스, 프랑스, 독일에서 내국사들이 외국보험사의 지점 및 대리점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7> OECD會員國 外國保險會社 支店 및 代理店의 收入保險料 總額比重指數 推移(損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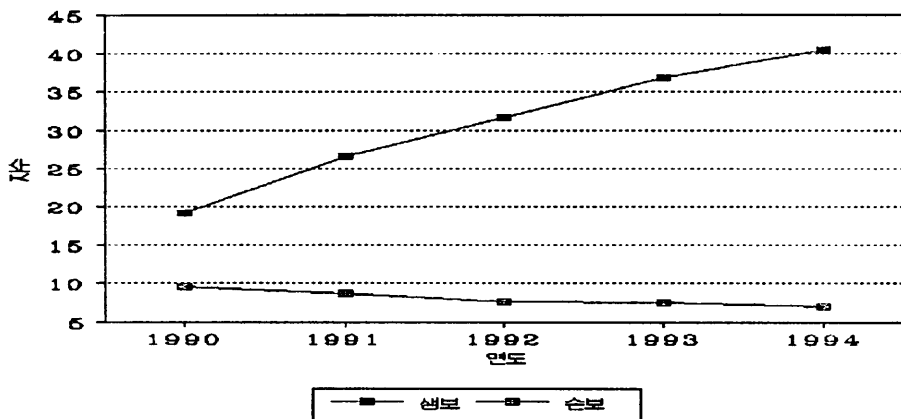
연도 국 가	1990	1991	1992	1993	1994
호 주	437.9	273.3	257.7	217.3	203.6
오스트리아	39.5	32.6	33.0	31.5	7.0
벨기에	381.3	357.0	268.4	253.7	127.0
캐나다	913.3	908.3	927.1	912.0	1172.9
덴마크	178.1	63.1	188.5	231.4	148.8
핀란드	7.9	7.8	8.5	11.9	19.1
프랑스	119.8	108.5	101.8	101.2	58.7
독일	109.5	107.4	84.0	82.0	66.6
그리스	575.2	669.7	-	426.1	446.8
아일랜드	-	-	-	-	-
아일랜드	1288.1	1251.5	1272.2	1031.0	1081.5
이태리	137.3	141.1	138.5	136.1	121.8
일본	91.3	102.5	106.6	106.1	128.8
룩셈부르크	-	-	-	-	839.2
네델란드	218.6	210.6	232.1	215.1	223.3
뉴질랜드	1060.5	-	-	-	-
노르웨이	44.6	53.5	50.7	53.8	-
포르투갈	263.9	273.3	272.9	283.7	159.7
스페인	266.7	269.1	284.7	234.4	290.2
스웨덴	-	-	-	-	-
스위스	55.6	42.5	40.4	39.7	46.6
터키	14.4	23.8	4.4	11.1	8.7
영국	166.1	156.3	194.0	231.8	276.3
미국	31.2	35.1	32.2	37.1	36.5
한국	11.9	8.8	6.9	6.6	6.1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부문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 활용된 收入保險料部門에서는 생·손보 모두 내국사가 외국보험사업자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보험사업자가 내국보험사와는 달리 외형보다는 內實爲主의 經營戰略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보험료가 적은 保障性保險 판매에 주력하고 있고,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 緣故募集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외국보험사업자의 연고성이 취약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비교우위지수 추이를 <圖 2>와 <圖 3>을 통하여 살펴 볼 때, 생보의 경우 그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국보험산업의 比較優位가 OECD회원국들과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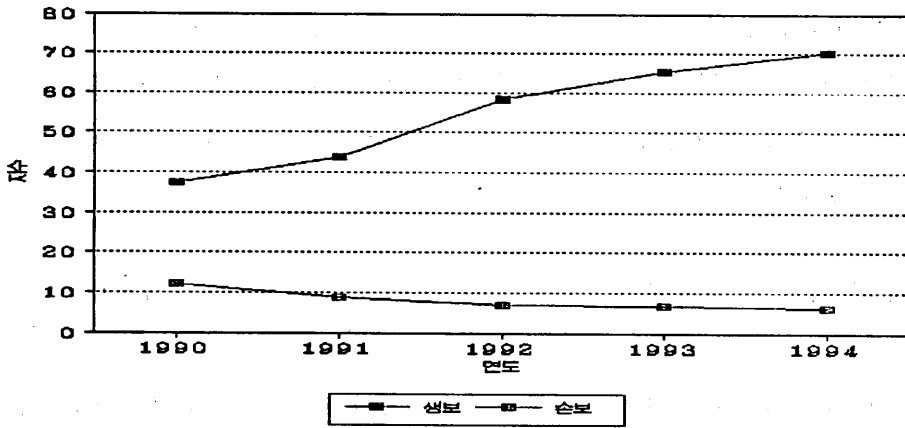
하여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총액비중지수로 살펴 볼 때 향후 수년내에 외국사의 점유율이 OECD의 가중평균치에 근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損保産業의 경우,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보험사의 비교우위지수가 10이내이고 최근에 이르러 계속 하향하는 추세로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사의 경쟁력은 OECD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연구대상 연도인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동안 우리나라 손보산업이 주로 自動車保險市場과 長期家計性保險市場의 급신장에 따라 절대규모가 급성장했으나 외국사들은 損害率이 높아 收益性이 없었던 자동차 및 장기가계성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은 결과 때문이다. 1995년 8월 自動車保險料率引上을 계기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외국사들도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경제적 수요심사조항의 철폐로 외국보험사의 新規市場進出이 늘어날 것이며, 또한 국경간 거래의 확대와 보험중개인제도 도입 등으로 외국사들은 企業性物件을 중심으로 營業範圍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는 외국보험사의 비교우위지수가 급격히 상승하리라 전망된다.

<圖 2> 우리나라 外國保險事業者의 收入保險料 均等比重指數(EWI) 推移



<圖 3> 우리나라 外國保險事業者의 收入保險料 總額比重指數(VWI) 推移



2) 資産運用部門

① 分析資料

OECD 保險統計年鑑은 運用資産을 不動産, 모기지 貸出, 株式, 債券, 一般貸出, 其他投資라는 6가지 투자항목으로 구분하여 내국사, 외국계보험회사, 외국사의 지점 및 대리점의 投資金額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收入保險料와 달리 資産運用部門의 경우 OECD 보험통계연감에 누락 또는 내·외국계보험회사의 구분이 되지 않은 국가들이 많은 관계로 분석대상이 된 국가는 7개국으로 한정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運用資産을 OECD 保險統計年鑑의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산출하였다.

특기할 점은 우리나라에 비해 분석대상이 된 7개국 중 포르투갈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내국사, 외국계보험회사 및 외국사의 지점 및 대리점 구분없이 債券投資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내국사보다는 외국계보험회사와 특히 외국사의 지점 및 대리점의 債券投資比重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OECD회원국에서 채권투자에 대한 投資限度가 없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운용자산이 소규모인 외국계보험회사와 외국사의 지점 및 대리점의 경우 債券投資를 통한 安定성과 收益성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資産運用收益率은 IMF가 발간하는 IFS(*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를 이용하여 不動産의 경우 消費者 物價上昇率, 모계지 貸出 및 一般貸出의 경우 貸出利率, 株式의 경우 綜合株價 收益率, 債券의 경우 政府長期債券의 收益率을 각 자산들에 대한 수익율로 평가하여 각국의 내국사, 외국계보험회사, 외국사의 지점 및 대리점 별로 산출하였다.

$$\begin{aligned} \text{資産運用收益率} = & \text{不動産의 比重} \times \text{物價上昇率} + \text{貸出의 比重} \times \text{貸出利率} \\ & + \text{株式의 比重} \times \text{株價收益率} + \text{債券의 比重} \times \text{債券收益率} \end{aligned}$$

OECD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항목중 其他投資의 경우 그 구체적 투자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산운용수익율을 구하는 데 있어서 동 항목은 배제하였다. 한편, 모계지 貸出 및 一般貸出의 경우 각각의 이자율 데이터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항목으로 통일하여 평가하였다. 그 이유는 모계지 貸出의 경우 長期貸出의 성격을 지니므로 貸出의 早期償還 가능성에 의한 자산운용상의 위험과 貸出期間의 長期化에 따른 기간프리미엄 등으로 인하여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더 높은 가능성이 있으나, 一般貸出의 경우 不動産을 담보로 하는 모계지 貸出과 달리 信用貸出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債務不履行 危險(default risk)에 따른 이자율에 있어서의 가산치를 감안하면 이들 두 값이 유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각국의 수익을 평가에 있어서 海外投資問題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외투자에 따른 수익율을 구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외투자부분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內國資産에 투자된 것만을 대상으로 그 수익율을 계산하였다. 株式에 있어서도 配當所得은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각국별 자료의 입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配當所得이 株式運用收益率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여도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不動産의 收益率을 반드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구분없이 物價上昇率로 대체될 수 있는가 하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이러한 세부적인 자료 역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의 공식에 의존하여 資産運用收益率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공표되고 있는 資産運用收益率을 직접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 不動産保有收益率과 같은 것이 구입당시의 買入價로 표시되어 있어 그 수익율이 간안되지 않는 등 다른 국가와의 會計基準상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나라의 자산운용수익을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수익율을 구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구한 각국별 자산운용수익율은 실제 공표된 수익율과 차이가 날 수 있다.<附錄 4 및 5 參照>

② 分析結果

資産運用部門의 경우 어느 국가가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했는지 국가별로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국별 자산운용과 관련한 모든 여건이 동일해야 하나 이러한 환경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安定性, 收益性, 流動性이라는 保險資産運用의 基本原則을 실질적으로 적용·규제하는 데 있어서 각국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로 投資對象, 投資限度 및 資金調達에 대한 規制가 상이하다는 점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율이나 資産價格의 變動性, 시장에서의 資産價格 등에 대한 規制, 시장의 開放程度에 따른 國家別 資本의 移動性 정도 등 資産市場의 環境的 與件, 市場參加者의 選好度, 債務不履行危險, 資産評價原則 등 국가별로 제반 환경도 서로 다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총액비중지수의 경우 제반 환경이 다른 국가들의 수익율을 아무런 여과없이 합산하기 때문에 그 지수가 주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아래 均등비중지수에 의한 競爭力指數를 산출하였다.

$$EWI_i = \frac{(F_i/T_i)}{\frac{\sum(F_k/T_k)}{n}}$$

위의 식에서 $\sum(F_k/T_k)/n$ 은 OECD 각 회원국의 내국사 대비 외국계보험회사나 외국사의 지점 및 대리점의 資産運用收益率 비율을 더하여 회원국 수로 나누어 줌으로써 외국보험사업자가 각 현지국의 내국사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자산을 얼마만큼 효

올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나타낸다. 균등비중지수의 경우 각국내에서 외국사업자와 내국사의 수익율의 비율을 구하였기 때문에 상기 언급한 국가별 제반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동일한 환경하에서 내국사와 대비한 외국사업자의 效率의 資産運用의 程度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均等比重指數를 산출해 본 결과 생명보험의 경우 1994년을 기준으로 미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일본이 외국계보험회사에 비해 내국사가 競爭力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보험사의 지점 및 대리점에 대하여는 미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의 내국사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계보험회사와 외국보험회사의 지점 및 대리점의 比較優位가 내국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表 18> OECD 會員國 外國系保險會社, 外國保險會社의 支店 및 代理店 資産運用收益率 均等比重指數 推移(生保)

년도 국 가	1990		1991		1992		1993		1994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오스트리아	97.9	83.1	99.7	78	109.8	97.2	93.8	73.2	93.2	-
덴 마 크	106.4	-	109.5	83.2	115.4	102.8	105	125.7	103.7	102.5
네 덜 란 드	100.1	77.4	100	75.6	98.7	77	93.4	93.7	95.8	90.2
포 르 투 갈	40.2	165.1	37.7	233	21.1	155.5	97.7	94.2	108.1	129.3
캐 나 다	104.4	76	107.8	73.8	106.6	85.7	103.3	97.4	103.9	89.4
미 국	96.3	79.2	98.1	73	99.6	74.5	90.7	83.5	93.1	74
일 본	115.5	102	111.4	82.4	123.2	87.5	111	103.7	99.4	85.6
한 국	138.9	117.1	136.1	100.1	126	119.8	105.1	134.1	103.1	129.1

損害保險의 경우 덴마크,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외국계보험회사에 비해 내국사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보험사의 지점 및 대리점에 대하여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미국, 일본이 자산운용수익율면에서 내국사가 競爭力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내국사보다 외국사의 지점 및 대리점의 자산운용상의 比較優位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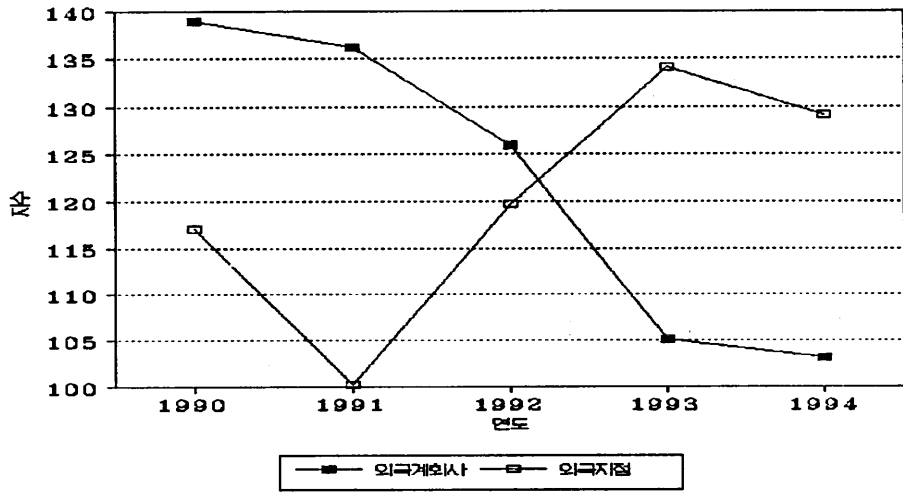
<表 19> OECD 會員國 外國系保險會社, 外國保險會社의 支店 및 代理店
 資産運用收益率 均等比重指數 推移(損保)

연 도 국 가	1990		1991		1992		1993		1994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외국계 보험사	지점· 대리점
오스트리아	91.5	115.5	101.9	109.1	123.4	147.3	110	134.9	114.2	136.8
덴 마 크	113	-	133.1	-	104.9	-	86.8	-	60.7	-
네덜란드	78.4	79.7	91.8	80.6	78.8	64.9	83.5	70.6	96.4	79.8
포르투갈	131.1	60.3	67.4	74.3	69.9	70.8	83.4	58	81.1	61
캐 나 다	80.8	104.6	89.5	105.8	105.4	113.1	112.7	122.3	107.4	107.2
미 국	81.5	88.1	94.7	88.9	100.6	86.3	97.6	90.5	100.7	88.5
일 본	123.7	118.2	122	106.7	116.9	-	126.4	-	139.5	97
한 국	-	137.5	-	134.6	-	117.6	-	123.6	-	1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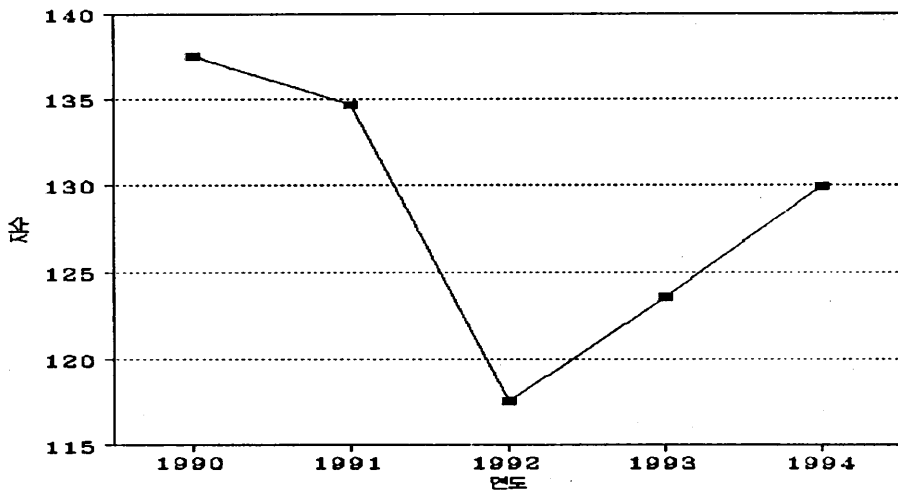
이러한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이 과거 外形爲主의 營業이 강조되어 수입보험료가 단기간에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만성적인 資金의 超過需要現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자산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계보험회사나 외국사의 지점 및 대리점에 비해 내국사의 투자비중이 큰 부동산과 주식이 1990년대 들어서 不動産市場의 안정 및 전반적인 株式市場의 침체에 따라 내국사의 수익율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점도 함께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5년간의 표본을 통해 볼 때 資金의 超過需要現狀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측면에서의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자산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히 보험자산의 長期的인 特性을 고려하여 短期實績爲主의 자산운용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자산운용의 이면에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안고 있는 높은 解約率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로 인하여 현·예금의 보유비중이 높다든지 또는 長期債券市場이 취약하다는 등 보험자산운용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나 단기실적에 집착하는 경영자의 마인드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圖 4> 우리나라 外國系保險會社 및 外國保險會社의 支店 資産運用收益率 均等比重指數 推移(生保)



<圖 5> 우리나라 外國保險會社 支店の 資産運用收益率 均等比重指數 推移(損保)



단기실적위주의 자산운용전략은 規制金利(固定金利)시대와 비교하여 金利自由化(變動金利)시대에서는 보험사에게 자산운용상 더 큰 위협을 야기시킬 수 있다. 금리자유화란 시장의 여건에 따라 금리가 변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資産/負債에 대한 綜合管理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기적인 자산운용전략은 金利危險(interest rate risk)과 再投資危險(reinvestment risk)을 안고 있다. 한편, 최근들어 생명보험의 解約率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이나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個人年金의 도입에 따라 장기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점은 보험사들의 부채 듀레이션이 더욱 장기화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런 변화없이 과거와 같은 단기실적위주의 자산운용전략은 보험사 스스로가 더 큰 위협에 자신을 노출시키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資産/負債管理에 바탕을 둔 효율적인 자산운용기법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보험사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 및 한도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아울러 보험사업자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보다 신장시킬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對應方案

1) 營業部門

기존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外國事業者에 대한 進入規制는 내국사의 시장점유율에 양(+)의 효과가 있는 반면, 國內産業保護의 逆作用으로 기진출 외국사업자에 비하여 내국사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음(-)의 효과도 있어 이 두 효과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결국 內國市場 保護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따라서 OECD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은 이제 政策的인 配慮에만 매달려 개방화·자유화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市場環境變化를 정확히 분석하여 이에 걸맞는 經營

7) 자세한 내용은 조강필, 정영철, 「OECD가입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고찰」, 『보험조사월보』, 1996년 7월호 참조.

합리화와 生産性 向上 등을 통한 體質強化 노력을 해야만 한다. 종래와 같이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던 시대에는 거래선 확보와 부수서비스 제공 등의 판매전략에만 치중하였으나 OECD가입에 따른 개방화·자유화시대에 있어서는 綜合的인 保險마케팅戰略(insurance marketing strategy)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공정한 경쟁환경하에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새로운 경쟁환경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데 국내보험사의 향후 成敗가 달려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영업전략으로는 첫째, 商品戰略(product strategy)으로서 OECD가입에 따른 경제적 수요심사의 폐지와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 국경간 거래의 추가허용 등 시장개방조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험가격자유화 상황하에서는 消費者를 危險群과 特性에 따라 細分化한 후 각 소비자 그룹별로 그들의 구미에 맞는 매력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상품군에서도 控除額(deductable)과 補償限度額(limit)을 소비자가 구미에 따라 신축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商品의 多樣化를 이루어야 한다. 經濟發展에 따른 새로운 保險需要 變化와 그에 따른 保險商品 開發도 선진국 경험을 참고하여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企業性保險을 중심으로 주문형(tailor-made)방식의 패키지商品도 개발해야 외국사와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행과 같이 모든 보험사가 모든 보험종목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保險種目別 또는 消費者 特性別로 主攻市場(target market)을 설정하여 해당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상품에 特化하는 戰略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小型社의 경우, 특정보험종목, 특정지역, 특정계층 소비자에 特化하는 戰略과 틈새市場戰略(niche market strategy)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價格戰略(price strategy)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하므로, 가격자유화의 진전 단계에 따라 언더라이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먼저 각 보험사는 언더라이팅 哲學을 수립해야 한다. 原價에 基準하여 안정적 언더라이팅을 할 것인가, cash flow underwriting을 위주로 할 것인가, 損害査定에 기초한 언더라이팅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여 이에 맞는 細部戰略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상품전략과 가격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損害率 管理, 언더라이팅 技法 및 保險料 産出 등에 대한 專門家를 충분히 確保하고, 시스템(system)도 構築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에 대한 정보와 각종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하여야 과학적 상품개발과 효율산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 부문의 투자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販賣戰略(distribution strategy)으로, 自社 商品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한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는 것과 판매에 따른 附隨的인 對顧客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販賣戰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국내 보험회사들은 損保社들의 경우 同一系列(group)내의 기업물건 위주의, 또한 生保社들의 경우 모집인의 개인적 친분관계인 위주의 연고중심 거래선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市場開放과 價格自由化가 이루어지면 가격과 상품이 회사별로 다양화되기 때문에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損保産業의 경우, 199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獨立代理店制度和 1997년 4월 保險仲介人制度의 도입에 따라 會社直撥에 의존하던 企業性物件이 선진국의 예처럼 獨立代理店이나 보험중개인 등으로 많이 이양될 것이다. 美國의 경우 기업성보험의 대부분을 독립대리점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 하겠다.

<表 20> 美國 獨立代理店の 企業性保險 募集現況

(單位: %)

구 분	재산 및 배상책임	상 용 차	선 박	상용종합보험
점 유 율	59.3	81.2	94.8	82.2

따라서 보험사들은 商品特性에 따라 募集組織別로 專門化를 달리하는 전략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會社直撥, 獨立代理店, 보험중개인 중 효과적인 판매조직이 保險種目 特性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⁸⁾, 美國에서는 會社直撥方式은 家計性保險(personal lines)에 유리하고, 특히 가계성이나 기업성 중 하나에 특화하는 것이 비용절감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獨立代理店の 경우 企業性保險(commercial lines)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매

8) Hogan, Arthur, Peruvemba, Satish and Robert Witt, "The Cost Structure of Distribution Systems in the U.S P/L Insurance Market,"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April, 1995.

조직임이 판명되었다. 이는 미국의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시장에도 같은 결과를 줄 것이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保險商品에 따라 販賣組織을 特化해야 한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英國에서는 전체 손해보험 판매의 54%와 기업성 물건의 76%를 보험중개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조직의 보험중개인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국가별로 특정판매조직 의존도가 서로 다른 것이 사실이나, 어느 시장이건 보험종목 및 상품별로 효율적인 販賣組織은 존재하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募集組織別 專門化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生保商品 등 家計性保險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통신·우편판매 등의 DM(Direct Marketing)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銀行에서의 保險商品 窓口販賣 방식(bancassurance)도 정착단계이므로 이들 방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대응방안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자사의 직급모집담당자가 중개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대기업 거래선이 기관중개인(inhouse-broker)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계속 비즈니스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기존 代理店의 大型化와 專門化를 유도하고, 專屬代理店과 募集人에 대한 教育을 강화하여 개인중개인제도 도입시 이들의 家計性 保險市場 浸透에 대비하여야 한다.

價格自由化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機會費用을 많이 지불하게 될 것이므로, 各社 販賣組織은 自社 商品뿐 아니라 他社 商品 및 價格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여 고객의 기회비용을 덜어주는 對顧客서비스를 해야만 효과적으로 대 고객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社에서 自社와 他社의 상품·가격 및 고객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관리하여 DB를 구축한 후 각 대리점에 네트워크(network)를 연결하여 신속히 공급하여 주는 시스템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販賣促進戰略(promotion strategy)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우선 一般國民의 保險商品과 保險會社에 대한 否定的인 認識을 전환하기 위한 制度마련과 弘報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保險約款을 明瞭化하여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업계의 공동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情報公示制度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 및 가격과 재무건전성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이해한 후에 보험구입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각 보험사별로는 對顧客서비스 向上을 통한 이미지 提高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우량고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優良集團에게 價格引下·附隨서비스 제공을 한다든가 물건이 큰 고객에 대해서는 保險料 引下(quantity discount)의 혜택을 주는 등 가격자유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해진 전략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경우 효과적인 촉진활동이 될 것이다. 특히 대 고객서비스 경험이 많은 외국사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구매를 하는 企業性保險을 중심으로 危險管理 등의 부수서비스를 제공하며 접근하는 경우 내국사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므로 기업성보험의 대 고객서비스 향상에 특히 힘써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對消費者 保險認識 提高를 위해 保險分爭을 해결하는 全擔部署를 사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資産運用部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內國市場에서 우리나라 保險產業의 資産運用能力은 외국사들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가격자유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국사와 외국사와의 수익율차이가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가격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수익율의 차이에 따라 배당액이나 보험가격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資産運用能力은 결국 그 기업의 營業成敗를 좌우하게 된다⁹⁾.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외국사와의 수익율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9) 個人年金市場과 같이 은행 및 투신권과 서로 공유하는 시장의 예를 통해 볼 때 收益率의 차이는 전체 보험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 미국의 경우 은행과 보험사가 먼저 선점했던 기업연금시장을 수익율의 격차로 인하여 투신과 증권에 빼앗겼던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개인연금과 같은 시장에서 수익율의 차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자금이 대거 이동하게 되는 價値移動(value migration)現狀을 경험할 危險性이 상존하고 있다.

최고경영자의 경우 보험이 갖고 있는 장기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재인식함으로써 현행과 같은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마인드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전문가의 스카웃 또는 기존인력의 해외 파견교육 등을 통하여 先進資産運用技法의 습득·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投信業 進出이 허용되어 있는 보험선진국들의 경우 投信子會社와의 긴밀한 業務協助關係를 바탕으로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의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의 투신업 진출이 금지되어 있어 자산운용상의 노하우를 습득하는데 限界가 있다. 이러한 노하우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보험사업자와 국내보험사와의 자산운용수익율의 차이로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 그 차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투신업의 진출이 허용되어 있는 국가의 보험회사와 資産運用收益率 競爭을 위하여는 국내보험사의 투신업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海外市場에서의 對應方案

가. 競爭力 評價

1) 營業部門

보험산업의 國際化는 보험선진국인 OECD회원국들의 사례를 통해 볼 때 海外投資와 保險營業이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 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보험료측면에서 세계 6위라는 국제적 위상과 달리 해외진출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사의 해외진출은 1966년에 大韓再保險公社가 월남에 사무소를 개설하며 시작된 이래, 1970년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함께 선진기술습득, 보험전문가 양성 및 선진보험시장의 연구조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해외진출이 이루어졌다. 1996

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해외진출은 現地法人, 支店, 合作投資 및 駐在事務所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총7개국에 11개의 현지법인과 12개의 주재사무소가 진출해 있다. 한편, 손해보험의 경우 총9개국에 3개의 현지법인, 6개의 지점, 6개의 합작투자, 30개의 주재사무소가 진출해 있다.

<表 21> 우리나라 保險會社의 海外進出 現況(1996年 3月末 現在)

(單位: 개)

진 출 형 태	생 명 보 험	손 해 보 험
현 지 법 인	11	3
지 점	0	6
합 작 투 자	0	6
주 재 사 무 소	12	30

생명보험의 경우 주로 租稅逃避(tax heaven) 地域에 서류상의 기업(paper company)형태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보험영업보다는 유가증권이나 부동산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주재사무소의 역할은 정보수집이 주목적인 바 우리나라는 아직도 해외시장공략에 있어서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생명보험보다 해외진출형태가 다양하며 소규모이기는 하나 원보험 영업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1995年度末 기준으로 國內 損保社 해외영업실적에 따르면, 408억원의 원수보험료 실적을 기록하여 국내 총영업규모의 약 0.4%를 차지하였다.

<表 22> 損害保險 海外營業實績 推移

(單位: 백만,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금 액	11,575	19,003	24,923	33,871	39,198	40,832
비 중	0.3	0.4	0.4	0.5	0.5	0.4

註: 비중 = 해외원보험수입보험료/원보험 총수입보험료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규모의 영세성은 다국적보험기업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美國의 경우 19世紀 後半부터 시작된 損保社의 海外進出은 1991年 현재 500個를 넘고 있으며, 해외영업규모도 1985년과 비교하여 약 2배의 신장을 기록하였다. 해외진출 대형보험사는 총수입보험료의 10~16%를 해외에서 거수하고 있고, AIG의 경우에는 총보험료의 40%를 해외에서 거수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도 1991년 현재 100개 이상의 해외영업거점을 통하여 1,300억 달러의 영업 및 투자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1985년 대비 약 2.5배에 해당한다.

<表 23> 美國 保險會社의 海外進出 現況

(單位: 백만\$, 개)

구 분		1985	1987	1989	1990	1991
생명보험	회 사 수	87	86	87	109	106
	영업·투자수익	56,000	78,000	111,000	119,000	130,000
	총 자 산	213,000	286,000	334,000	415,000	451,000
손해보험	회 사 수	530	545	536	518	507
	영업·투자수익	123,000	192,000	204,000	229,000	233,000
	총 자 산	351,000	518,000	607,000	701,000	713,000
합 계	회 사 수	617	631	623	627	613
	영업·투자수익	179,000	270,000	315,000	348,000	362,000
	총 자 산	564,000	804,000	941,000	1,116,000	1,164,000

註: 1. 회사수는 미국인이 최소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

2. 영업·투자수익은 보험영업, 투자 및 기타수익을 합한 것임.

資料: U. 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 S. Direct Investment Abroad*, 1994

英國의 경우에는 損保社들의 海外進出 역사는 1700年代 中盤부터 시작되었다. 1994년 기준으로 영국 손보산업의 총수입보험료중 38.3%가 海外營業으로부터 거수한 것이다. 영국의 손보사들은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 시장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가 등에도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다. 또한 영국계 보험회사뿐 아니라 保險仲介人도 적극적으로 해외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表 24> 英國 保險會社의 海外營業 現況

(單位: 백만 £,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생 보	수입보험료	6,597	7,845	9,188	9,365	10,822
	비 중	16.4	16.5	17.5	16.8	20.0
손 보	수입보험료	8,205	8,489	9,860	11,079	12,010
	비 중	37.5	36.4	37.7	37.4	38.3

資料: Tillinghast-Towers Perrin, *Insurance Pocket Book*, 1996.

多國籍保險企業戰略을 구사하는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해외영업은 유아적인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보험사가 해외시장진출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국내에서의 充分한 成長機會가 存在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지만, 外國市場에 대한 知識不足, 海外進出 專門家 不足, 海外制度 · 規制에 대한 情報不足 및 文化/言語問題와 換率變動問題 등의 管理능력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資産運用部門

우리나라 보험사의 海外投資規模는 1996년 8월말 현재 생보사의 경우 8개사가 약 1,959억원으로서 運用자산대비 약 0.33% 이며 손보사의 경우는 6개사가 약 316억원으로서 運用자산대비 0.49% 수준이다. 생·손보 전체로는 약 2,275억원으로서 運用자산 대비 약 0.3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投資方法도 債券投資에만 국한되거나 株式投資를 하는 경우에도 海外 直接去來를 통한 투자형태보다는 주로 投資基金에 가입하여 運用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규모에 있어서도 運用자산에 대비하여 봤을 때 OECD회원국들의 해외투자규모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表 25> 우리나라 保險會社의 海外有價證券投資 現況(1996年 8月末 現在)

(單位: 백만원, %)

회 사	구 분	해외유가증권투자(A)	운용자산(B)	비중(A/B)
생 명 보 험	A	107,352	10,064,163	1.07
	B	5,348	3,413,825	0.16
	C	64,939	24,379,834	0.27
	D	3,457	3,221,828	0.11
	E	2,458	14,599,441	0.02
	F	7,420	2,076,872	0.36
	G	4,884	1,026,262	0.48
	H	80	1,135,486	0.01
	소계	195,938	59,917,711	0.33
손 해 보 험	I	815	350,298	0.23
	J	1,752	610,562	0.29
	K	2,183	270,695	0.81
	L	11,728	2,513,317	0.47
	M	7,549	1,408,222	0.54
	N	7,622	1,258,488	0.61
	소계	31,650	6,411,581	0.49
합계	227,588	66,329,292	0.34	

OECD 『保險統計年鑑』(1996)상에 海外投資와 內國投資가 구분되어 있는 OECD 회원국들의 海外投資比率을 살펴보면 과거 6개년 동안 운용자산중 생보는 평균 9.4%를, 손보는 11.4%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생보의 경우 株式 및 債券에 거의 동일한 비중을 두고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반면, 損保의 경우 債券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았다. 그 이유로는 손보자산의 성격상 생보보다 상대적으로 短期資金을 운용하기 때문에 安定성과 流動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 보험사의 경우 해외투자에 있어서 주로 펀드의 가입에 의한 間接投資나 債券投資에만 국한되어 있는 반면, OECD회원국 보험사들의 경우 不動產 및 貸出에도 일정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사에 적합한 海外投資戰略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表 26> OECD 會員國 保險會社의 平均海外投資 및 資産運用對象別 比重
(最近 1989~1994 6個年 平均)

구 분	해외투자비중	부동산	대 출	주 식	채 권
생 명 보 험	9.4	6.50	7.37	43.40	48.82
손 해 보 험	11.4	2.46	4.07	34.17	60.23

註: 생명보험은 호주,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일본, 영국의 6개국,
손해보험은 호주,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의 5개국 평균.

資料: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1987-1994*, 1996.

總運用資産 對比 海外運用資産의 規模나 運用對象을 통하여 OECD회원국들의 해외에서의 자산운용능력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해외영업 능력과 마찬가지로 해외투자시 필연적으로 극복해야 할 外國金融市場 및 相關규제 등에 대한 情報와 海外 資産運用專門家가 不足한 實情이며, 換率變動, 投資對象國家危險(country risk)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管理능력도 OECD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對應方案

1) 營業部門

주요 선진국 保險社의 海外進出 目的 및 戰略은 자국 보험시장 여건, 해당 보험사의 발전단계 및 경영능력과 진출대상국의 금융 및 보험관련제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多國籍 保險企業 戰略'으로 전세계에서 활동적으로 현지인 상대 보험영업을 영위하는 방식과 일본처럼 海外 投融資 목적으로 진출하거나 현지의 自國 企業中心으로 제한적 해외보험영업을 영위하는 방식 등 국가별로 해외진출 전략은 상이하다.

한편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하면, 1996년까지 金融서비스部門의 多者間協商이 계속될 것이므로 협상결과에 따라 保險産業의 國際交易도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¹⁰⁾ 특히 GATS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外國社에 대한 非差別的이고 透明性 높은 規制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자회사 또는 지점을 통한 외국 보험사의 各 會員國 市場 進出 許容基準과 진출시의 內國民對偶에 대한 규제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 보험사들이 보험영업 또는 투자목적의 진출전략을 세워 후진국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것이다.

따라서 海外에 進出하려는 先進國 保險社들은 자신의 실정에 맞고 진출대상국 특성에 부합되는 海外進出戰略을 수립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으리라는 판단이다.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선진국 보험사들의 해외진출 전략을 깊이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國際化 戰略이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 토론하여 바람직한 方向設定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진출 경험이 많은 外國社의 事例와 그들의 最近 動向에 관한 연구는 국내 보험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는 판단이다.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수출입 등 무역업무 및 서비스의 교류 등 국내 기업이나 국민들의 國際交流에 수반되는 각종 保險去來를 중심으로 主要 貿易對象國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야 한다. 定着 初期에는 國內의 進出企業이나 僑胞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점차 현지사업과 현지인에 정착하는 段階的 接近方式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정확한 情報蒐集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해외진출 수년전부터 사무소 형태 설립 등으로 치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매력있는 대상시장으로는 中國과 中南美 등의 교역 활성화 지역과 동남아시아·인도 등 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에 교두보확보를 위한 진출과 保險技法을 습득할 수 있는 先進國 市場進出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방경제체제로 전환중인 동유럽국가들의 진출도 고려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2) 資産運用部門

이론적으로는 國際分散投資(international portfolio diversification)가 매우 설득력을

10) Woodrow, R. Brian, "Insurance Services in the UR Services Negotiations : An Overview and Assessment of the Final Agreement,"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January, 1995.

지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970년대말까지 국제적으로 海外投資는 小規模로만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유로는 각 국별로 資本移動 및 해외투자에 관한 規制가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OECD를 주축으로 선진국들 사이에 자본이동 및 해외투자에 대한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재 이들 국가간에 자본이동 및 해외투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非OECD國家들로도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OECD가입에 따라 外國資本의 국내유입과 국내보험사들의 海外投資에 대한 規制緩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므로 향후 보험사의 효율적 자산운용 차원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특히, 향후 국내 시장에서의 低金利基調 정착, OECD가입에 따른 충격흡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經濟的 混亂,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되는 핫머니의 금융시장 교란 가능성, 이에 따른 금리 및 주가의 변동폭 증대 등과 같은 국내시장의 문제는 보험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실질적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1974년~1993년 까지의 우리나라와 G5(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株價收益率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우선 각국의 株式平均收益率과 標準偏差를 구해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수익율과 편차는 절대값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단위수익율당 위험을 나타내는 變動係數는 미국·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영국보다는 높으나 독일·프랑스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株式市場의 경우 단위당 수익을 대비 投資危險이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表 27> 各國의 株式平均收益率과 標準偏差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평균수익율(%)	16.7	8.9	10.6	13.9	7.8	11.1
표준편차(%)	29.3	14.9	17.3	10.9	18.0	24.1
변동계수	1.75	1.67	1.63	0.78	2.31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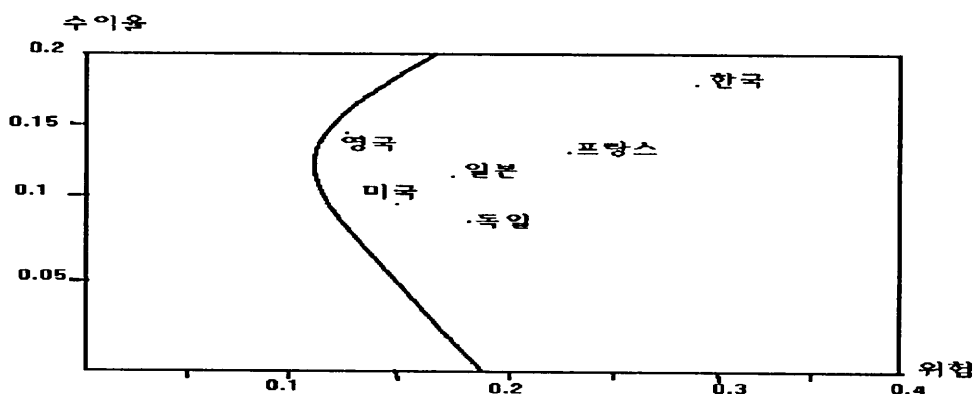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들의 相關關係를 보면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상관관계가 제일 높은 나라는 日本으로 0.69이며, 미국의 경우는 0.23, 기타 나라는 이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이 국가에 分散投資하는 경우 危險分散效果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8> 各國의 株式平均收益率間的 相關行列(1974~1993)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1.00	0.23	0.69	0.18	0.00	-0.21
미국	-	1.00	0.34	0.42	0.51	-0.34
일본	-	-	1.00	0.54	0.28	-0.01
영국	-	-	-	1.00	0.40	0.17
독일	-	-	-	-	1.00	0.16
프랑스	-	-	-	-	-	1.00

이들 국가들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하여 달성 가능한 위험·수익율간의 最適組合을 나타내는 效率的 境界(efficient frontier)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圖 6> 各國의 株式平均收益率과 危險 및 效率的 境界



따라서 상기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韓國證市는 효율적 경제선상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바 보험사가 한국증시에만 투자하는 것은 非效率的인 投資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株式의 海外分散投資를 통하여 투자위치(position)를 효율적 경제쪽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같은 수익율을 보장하면서 위험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新興市場(emerging market)이나 기타 선진국을 고려할 때 그 分散投資效果는 위의 예에서 보다 더욱 높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내국투자에만 전념한다는 것은 결국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율의 저하를 의미하고,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격 자유화시대에서는 궁극적으로 영업능력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결코 바람직한 資產運用戰略이 될 수 없다. 자본시장의 國際的 統合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황을 볼 때 海外投資能力은 우리나라 보험사에게도 대내외 보험시장을 막론하고 경쟁력의 선점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기의 예는 과거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미래의 상황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당위성은 존재하지만 더욱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는 海外投資 專門人力이나 地域專門家의 確保를 통한 換危險 문제나 投資對象國家危險(country risk), 稅率이나 海外投資의 去來限度와 같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有價證券投資 목적으로 現地法人 형태로 진출해 있는 국내보험사의 해외 법인인력이 평균 1~2명으로 국한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해외투자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외투자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모든 보험사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계획이 일률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中小型 保險社들의 경우에도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의 확대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외투자는 전문가의 육성, 지점 또는 現地法人의 設立 및 維持, 지속적인 정보의 수집비용 등과 같은 대규모 고정비용으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외 펀드의 가입을 통한 間接投資가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채듀레이션의 장기화 현상에 따라 資產/負債管理

의 효율성 제고측면에서 국내의 부족한 장기채유통시장을 감안하여 해외장기채 투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국내채권의 경우 3년 이내의 中·短期債券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측면에서 볼 때 장기채와 비교하여 再投資危險(reinvestment risk)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내국의 中·短期債券에만 투자하는 경우 재투자위험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海外長期債에 대한 투자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表 29> 保險會社 規模別 海外 資産運用戰略

구 분	주 식	채 권
대형보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fund가입을 통한 투자확대 · 해외전문인력육성차원에서 제한적인 한도내에서 직접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투자위험 회피차원에서 장기채에 대한 투자확대 · 해외전문인력육성차원에서 제한적인 한도내에서 중·단기채 운용
중소형보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fund가입을 통한 투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투자위험 회피차원에서 장기채에 대한 투자확대

결론적으로 大型社의 경우 市場開放이 완료되는 2000년을 전후로 해외자본시장에서 세계유수의 보험사들과 경쟁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직접적인 海外投資力量의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中小型社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간접투자방식에 의한 해외자산운용을 하되 궁극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에 목표를 두고 자사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投資專門人力 확보와 投資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결국 OECD에의 가입은 資産運用能力에 있어서도 OECD회원국의 수준만큼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조속히 자산운용능력을 제고하여 해외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를 極大化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함은 물론 環境變化를 자신의 成長機會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회사만이 統合化가 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 추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日氣가 나빠졌다고 해서 비행기가 계속 날지 못한다면 그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